

투데이 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AI 정책에 거는 기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한민국을 AI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산업과 사회 전반이 AI 혁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를 그리는 장기적 계획이다.

이번 AI 정책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보화 혁명에 버금가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안을 가지고 정보화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교도소 수용자까지 정보화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보화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정보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지금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AI 정책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능동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AI 인프라 구축과 'AI 고속도로' 조성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AI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장비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재가 AI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가 전 국민과 교정시설 수용자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 전반의 정보 역량을 높인 것처럼, 이번 AI 정책도 국민 모두가 AI를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AI 혁신은 핵심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 공공 서비스 개선, 조세 행정 혁신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국가 AI 위원회를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은, 정보화 혁명 당시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AI를 핵심 산업과 결합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AI 드론 등 첨단 방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과 안보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육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큰 그림임을 보여준다.

안전과 윤리 문제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안정하고 윤리적인 AI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AI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AI와 에너지를 대한민국 성장의 두 축으로 삼아 2030년까지 세계 3위 수준의 AI 종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 정보화 혁명이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듯이, 이번 AI 정책도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사회가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AI 정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AI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술로 만들고, 산업과 공공,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화 혁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처럼, 기술과 교육, 공공 혁신을 결합한 전략은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 혁명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AI 중심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정보화 혁명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능동적 참여와 혁신적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AI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3대 AI 강국'으로 안착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설

노인운전 사고 해마다 급증

노인 운전 중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으로, 1년 전보다 12%(30명) 줄었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761명으로 1년 전보다 2.1%(16명)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는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차량 안전도 평가 반영, 시범사업, 입법 예고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세단, SUV 등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일본은 6년 전인 2019년 4월

발생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당시 교령지가 도로 도심에서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기존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시 90세에 가까웠던 운전자의 차량은 100km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고 31세의 여성과 3살배기 여아 포함 총 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본에서 페달오인 방지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카'라고 하는데, 오인 방지 장치 보급에 힘쓴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미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 있다.

일본은 8년 전인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치매로 최종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말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

갈수록 말 때문에 국가 사회가 시끄럽다. 사회 지도층의 언어가 너무 거칠다는 비난도 많다. 요즘은 진실과 동떨어지는 허위 사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기 일쑤다. 사실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말이 많다. 이런 '사실 아닌 사실'은 반복 인용되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눈 내린 밭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말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의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과 음모가 인터넷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은 거짓을 사실처럼 만들어 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곤경

에 빠뜨린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집단의 말이 허구를 현실처럼 만든다는 말이다. 석가모니도 언어의 해악을 경계했다.

그는 열반을 위한 여덟 가지 수행 중 하나로 '바른말'을 강조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간질, 욕설, 허세는 피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다. 둘째는 그런 말이 자기감정·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은 내면을 정화한다.

평온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말은 공동체의 소통 수단이자,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분열과 거짓의 언어로 서로를 공격만 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거짓과 분열로 물들이기 쉽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암 치솟는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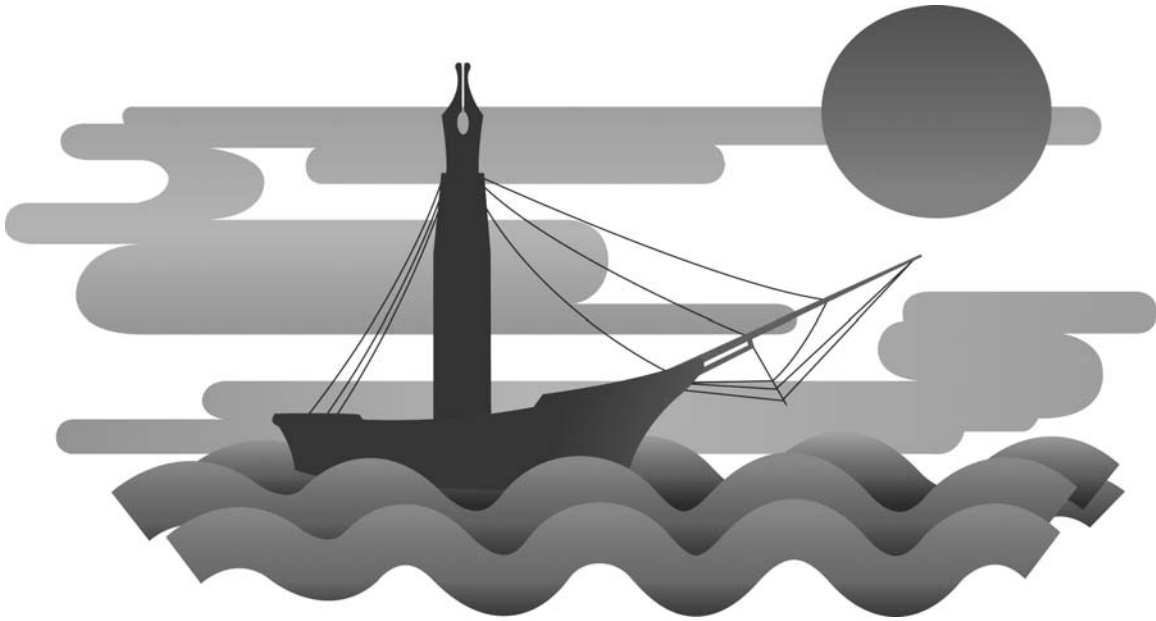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영상 사진에 2일(현지 시간) 미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부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해 흘러내리고 있다.

연회에서 건배 제안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의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열린 연회에서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